

“신속한 의사결정, 기민한 실행력... ‘압도적 리딩뱅크’”

새해 새 전략... 쏘앗 (So What)

①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증권·손해보험·카드 업계 일류로
부문별 유기적 협력으로 시장 주도
인프라·프로세스 고도화 추진해야

올해 KB금융그룹의 목표는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초격차를 만드는 것이다. 2017년 ‘리딩뱅크’ 자리를 탈환하고, 2018년 그 자리를 지켜냈다. 2019년은 경쟁자가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 놓을 계획이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변화와 혁신을 마추고 있는 지금 금융혁신을 주도하는 리딩금융그룹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하게 정립해 나가야 한다”며 “신속한 의사결정과 기민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리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회장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성큼성큼 걷는다’는 고시찰보(高視濶步)의 자세를 강조했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步)의 자세를 강조했다.

◆ 2019년, 초격차의 원년

KB금융은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이 2조8688억원으로 신한금융지주(2조6434억원)를 앞섰다. 지난해 리딩뱅크 경쟁의 승자는 사실상 KB금융으로 결정됐지만 문제는 올해다. 신한금융도 생명보험사인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등을 인수하며 리딩뱅크 탈환에 본격 나선 상황이다. 윤 회장이 박빙의 경쟁구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가 아닌 넘볼 수 없는 리딩뱅크의 위상을 목표로 내세운 이유다.

윤 회장은 초격차를 위해 먼저 본업의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다.

그는 “은행은 압도적인 1위로서 경쟁자와의 초격차를 만들어야 하며 증권과 손해보험, 카드는 업권 내 일류(Top-tier)로서의 지위를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계열사가 초심으로 돌아가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 부문별로 유

기적인 협업을 통해 시장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사끼리 경쟁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는 것이 윤 회장의 생각이다.

윤 회장은 “아마존, 텐센트 등의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고객기반과 강력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고, 디지털 금융 기술의 진화에 따라 결제·송금 채널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며 “디지털 혁신은 변화를 뛰어넘어 점점 더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혁신은 위협인 동시에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는 “최근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모바일 결제 앱은 구글이나 애플페이 아닌 스타벅스 앱으로 선불카드와 앱에 충전된 현금은 일부 지방은행의 규모를 뛰어넘을 정도”라며 “고객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편의성을 향상시킨 스타벅스의 사례처럼 그룹 핵심 인프라와 프로세스에 대한 혁신과 고도화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윤 회장은 “복합점포, 디지털채널, 아웃바운드 모델 등 고객접점에서의 체

널을 더욱 다변화하고, 30대 여성과 워킹맘, 사회초년생 등 디지털 최우선 타겟 고객을 선점해 새로운 기회를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략적 M&A 추진”

국내 인수합병(M&A)과 글로벌 진출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핵심 사업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며 “전략적 M&A를 추진해 그룹의 포트폴리오를 더욱 견고하게 다지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진출은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제시했다.

윤 회장은 “동남아와 선진국 시장에 대한 투트랙 전략을 바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더욱 확대하고, 수익기반 다변화와 영업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부문에서의 시장지위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급격한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자산운용 분야에서는 그룹 지원의 공동대응과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Scale-up)을 시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금감원 개원 20주년

금융감독원이 2일 개원 20년을 맞았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2019년 시무식을 동시에 가졌다. 윤석현 금감원장은 인사말에서 “금감원 역사는 어찌 보면 대한민국 금융의 역사”라고 말했다. 윤 원장이 임직원과 신년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케이뱅크-KT

더블혜택 체크카드 출시

케이뱅크는 2일 주요 주주사인 KT와 손잡고 KT멤버십 고객을 위한 ‘케이뱅크 x KT멤버십 더블혜택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더블혜택 체크카드는 ▲KT멤버십 더블할인 ▲KT통신요금 캐시백 ▲해외서비스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 푸레쥬르, 배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 CGV 등 KT멤버십 제휴가맹점에서 더블혜택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KT멤버십 포인트 할인적용을 받는다.

여기에 KT멤버십으로 할인받은 금액만큼 현금을 한 번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전월 체크카드 이용실적이 20만원 이상이면 최대 월 4만원까지 캐시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안상미 기자



‘직원행복, 손님행복’ 기해년 행복한 시작

KEB하나은행 함영주 은행장

본점서 출근시간 미소로 직원 맞아

KEB하나은행은 2일 오전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함영주 은행장과 임직원들이 ‘새해 아침 인사’를 나누며 새해 첫 영업일을 활기차게 시작했다.

KEB하나은행에 따르면 함영주 은행장과 임원들은 이날 출근시간 본점 정문에서 하이파이브와 환한 미소로 출근하는 직원을 맞이했다.

임직원들은 하나금융그룹과 KEB하나은행의 2019년도 경영 슬로건인 ‘씽크 휴머니티, 고 디지털(Think Humanity, Go Digital)’이 추구하는 ‘직원행복, 손님행복’을 함께 되새기며 새해 첫날 업무를 시작했다.

함영주 은행장은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해를 맞아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복(福)돼지 인형과 돼지가 그려진 떡을 직원들에게 선물했다.

또한 함영주 은행장이 ‘돼지꿈 게시판(Piggy Dream Wall)’에 게시된 영업점 직원들의 새해 소망을 직접 소개하며 함께하지 못한 직원들에 대한 아쉬움을 대신했다. /김민호 기자 kmh@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오른쪽)이 2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출근하는 직원들과 반갑게 ‘새해 아침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함영주 행장은 “2019 기해년(己亥年)을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KEB하나은행이 금융시장의 리더로 우뚝 서는 원년으로 다같이 만들어보자”며 “최고의 은행은 ‘직원 행복, 손님 행복’의 목표 추구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KEB하나은행은 매년 형식적인 시무식 대신 은행장 이하 임원들과 신입사원들이 출근하는 직원들을 맞이하는 새해 아침 인사 행사를 매년 이어오고 있다.

“저축은행, 디지털 뱅킹시스템 구축해야”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 신년사

이순우(사진)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저축은행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의 디지털뱅킹시스템을 구축해 회원사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을 통한 비대면 금융활성화로 저축은행만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2일 신년사에서 “현 금융업계는 인공지능(AI) 활용과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정보기술(IT) 경쟁력을 기준으로 세력이 재편되는 급격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며 “전략적 제휴확대와 인터넷 전문은행 수준의 디지털뱅킹시스템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저축은행에 대한 이미지도 개선도 요구했다.

그는 “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중금리 대출 확대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왔지만 아직까지 저축은행에 대한 시선에는 고금리 대부업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언제 영업정지가 될지 모르는 곳이라는 우려가 배어있다”면서 “보장



부 중금리 대출확대와 저축은행 감사양성 및 활용을 통한 금융교육,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이미지를 변화시키자”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마지막으로 회원사가 체감할 수 있는 업무지원체계 정착을 강조했다.

그는 “늘 저축은행 중심의 업무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회원사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다”면서 “이제는 이러한 노력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실무자료 제공과 교육, 현장 지원을 강화시키자”고 당부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우리은행 ‘새희망홀씨대출’ 성실상환자 금리우대

우리은행은 창립 120주년을 맞아 서민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우리새희망홀씨대출의 금리를 최대 2.0%포인트 우대한다고 2일 밝혔다.

금리우대 대상은 2019년부터 새희망홀씨대출을 이용하는 고객 중 매 6개월 동안 연체 없이 원리금을 상환하는 고객이다.

우대폭은 6개월간 최저 0.25%포인트 최고 0.50%포인트며, 대출기간 동안 최대 2.0%포인트이다.

은행 내부등급에 따라 저신용자에게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기존에 내부등급과 관계없이 매 6개월마다 0.25%포인

트씩 적용되던 우대 금리를 10등급은 0.50%포인트, 7~9등급은 0.40%포인트, 4~6등급은 0.30%포인트로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리새희망홀씨대출은 저신용자 또는 저소득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상품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창립 120주년과 우리금융지주 출범을 맞아 저신용자와 성실상환자를 위한 특별 금리 우대제도를 도입했고, 서민금융상품을 7000억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라며 “‘더큰금융’을 통해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